부처님오신날 종정예하께 여쭙다

“平常心是道의 진리는 살면서 지켜야할 상식”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지난 3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대 종정 추대 법회가 열렸다. 법상(法床)에 오른 종정 성파 스님은 미리 준비한 법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즉설법문을 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를 다 잊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 합시다”라고. 조계종 최고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종정 추대 법회에서 이러한 즉석 법어는 매우 드문 일종의 파격이었다. 조계사 마당을 가득 채운 3천여 참석자들은 순간 놀랐고 즉석 법어에 웃음과 박수로 답했다.

이날 성파 스님의 법문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과 가정, 사회, 국가 모두 새 출발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들렸다.

봉축을 앞둔 지난 4월 26일 종정 스님이 주석처인 양산 통도사 서운암을 찾아가 다시한번 법을 청했다. 춘화가 만발한 서운암 도량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신록과 갖가지 꽃들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했다. 성파 스님은 대뜸 코로나로 쉽지 않았을텐데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세상에 모두 회자된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종정 큰스님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술세계와 선수행담, 살아오신 인생역정까지. 그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양산 통도사/글=김주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지난 종정 취임법회 때 즉석 법문이 대중들에게 화제였습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된 선지식들의 조사어록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쉬운 일상언어로 말씀해서 신선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역대 종정 스님들 법어가 사회적 울림이 컸다고 저한테도 그런 반향이 있는 말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작정한 건 아닌데 현장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중에 오셨고, 특히 문대통령 내외도 맨 앞에 앉아 계신데 미리 쓴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말한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어렵다 쉽다로 언어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쉽게 가르치고 말해도 모르면 어려운 것이고, 또 어렵다는 것도 알고 나면 쉬운 겁니다. 사과로 유명한 충주 것도 먹어보고 청송 것도 먹어봐야 사과라는 것인 줄 알게 되잖아요? 사과란 과일의 존재를 알면 그만이지, 맛이 어떻다 당도가 어떻다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제가 한 법문도 쉽고 좋고 신선하다고 겉만 평하지 말고, 그 의미나 뜻을 알고 실천하면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 세상서 가장 훌륭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동에 있는 겁니다. 말에 끄달리기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종정 임기를 시작하신 지 이제 어느덧 한달 정도 됐는데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우선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공양하고 대중 스님들 만나서 사중 이야기도 듣고요. 공식 일정이 잡혀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 남으면 거의 작업실에 올라와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종정 됐다고 달라진 거라면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정치가도 아닌데 달라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평소 생활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지 특별히 격식을 차리고 싶지 않아요. 봉축 법어도 평소 생각하던 걸 말했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종정예경실을 꾸리지 않아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다고 하는데 조계종은 종교단체이니 예경실, 예경실장이라고 직함을 주고 사서가 있어 종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거처하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도사에 살고 있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본사 주지가 예경실장 역할 하면 되고, 또 사중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요. 굳이 번거롭게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로 봐도 예경실도 또하나의 권력으로 승화될 수 있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서운암에 들어서니 장을 담근 수백개의 항아리들이 장관입니다. 1980년대부터 버려진 장독을 수집해 간장, 된장을 담그신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만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독만권서(讀萬卷書) 행만리로(行萬里路)’란 말이 있지요. 강원과 선원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소임을 살았으니 이젠 다른 방향 즉 전통을 되살려보자는 쪽으로 만행을 해보자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던중 1970년대 말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택가 골목마다 항아리가 넘쳐 났어요. 청자 백자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전통 옹기 항아리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민족 생활문화의 정수인데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고물상을 찾아다니며 50년 이상 된 항아리를 모아달라고 부탁해서 모은게 5천개가 넘더라구요. 그때는 그 항아리로 특별히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항아리 덕을 톡톡히 봤죠. 1980년대 초반 부산을 시작으로 일본의 간장과 된장이 상륙했어요. 아파트에서 직접 담가 먹지 못하니 일본 제품이 마구 들어온 거죠. 우리가 왜정 때 그 고생을 했는데, 된장까지 일본 것을 먹어서야 되겠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항아리에 전통 방법으로 된장과 간장을 담가 보급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소개되니까 전국서 전통 장 담그던 분들이 다시 만들어 보급하더라구요. 그 덕에 왜간장, 왜된장은 물러갔지요.

△사찰의 전통옻칠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힘쓰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